

# 추모기간 활용 '김정은 체제' 굳히기

## 조문 인사들 접견하며 충성서약 받아 국제사회 '김정은 시대' 알리기 무대로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추모 기간을 후계자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주민의 충성 다짐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제사회에는 북한이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 바뀌었음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금수산기념궁전에 마련된 김 위원장의 빈소에서 고위인사를 맞이하며 최고지도자로서 출도서기를 시작한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면서 사실상 충성서약을 밟았다.

조선중앙TV가 21일 공개한 동영상에서는 김 위원장의 영구(靈柩)에 참배를 마친 북한의 조문객들이 김 부위원장 앞으로 가 하리를 90도로 굽혀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김 부위원장의 친모는 아니지만 김 위원장의 넷째 부인으로 사실상 어머니인 김옥 국방위원회 과장도 김 부위원장에게 하리를 숙여 예를 올리는 장면도 포착해 눈길을 끌었다. 군부의 일부 고위인사는 인사를 올리며 거수경례로 충성을 다짐하기도 했다.

또 김일성 주석과 김 위원장의 의전을 맡았던 전희정 국방위원회 외사국 의전국장은 김 부위원장의 곁에서 3대째 김일성 가계의 모든 의전을 도맡아 새 권력의 시대가 열렸음을 실감케 했다.

북한의 언론매체에 등장하는 주민

들이 김 부위원장에 대해 '영도자'·'계승자'·'위인의 풍모' 등 찬양조의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북한 사회 전반에 충성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의 하나로 분석된다.

김 부위원장이 2009년 1월 후계자에 내정된 뒤 체 3년도 안되는 후계체제 구축기를 가졌던 만큼 이번 추모기간을 통해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려는 북한 권부의

다급한 속내가 읽힌다.

김 부위원장은 북한의 고위인사뿐 아니라 재외동포 단체 조문객을 직접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자연스레 알렸다.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 북한의 선전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북한은 앞으로 이들을 김 부위원장의 찬양선전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은 이번 조문기간을 김 부위원장이 최고지도자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 국제기구 등의 관계자도 20일 김 위원장의 영전에 참배하면서 김 부위원장은

장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북한은 또 각국의 지도층이나 유력 인사들이 김 부위원장 앞으로 보낸 조선을 접종소개하며 '영도자는 김정은'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했다.

중앙통신은 미국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김 부위원장 앞으로 보낸 조선을 소개하면서 미국인까지 김 부위원장의 위상을 인정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카타르 국왕을 비롯한 중동국가 지도자들이 김 부위원장장을 '최고영도자'로 호칭한 조선의 전문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조문하는 외국인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발표 사흘째인 21일 김 위원장의 초상화를 찾아 조문하고 있는 평양의 외국인들.

# 젊어진 의회 활기... '예산 파동' 상처도

## ■ 광주시의회 의정 활동 결산

전체 의원 26명 중 초선이 21명 인데다 30~40대 의원들이 17명에 달한 제6대 광주시의회가 '젊어진 의회상'을 구현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올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의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연구모임' 등 4개의 자체 연구 모임을 만들어 올해 38차례 모임을 갖는 등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주요 현안 사업 현장과 공공시설 관리 현장, 민원발생 현장 등 51곳을 방문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안사업 및 민원해결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다만, 행정사무조사는 전년도보다 8% 감소한 573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시민단체와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20차례가 넘는 회의를 여는가 하면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와 토론회를 여는 등 외부와의 소통에도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전북도의회 의장단이 주축이 돼 지역이기주의에 얹매여 진척을 보지 못한 지역현안을 풀고자 출범했던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지지부진 지적을 받았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민과 시 출연기관 관계자들의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에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집행부 감시 활발... 잇단 비리 큰 흄집

## ■ 전남도의회 의정 활동 결산

민주당·무소속·민노당·한나라당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주목받은 전남도의회는 올해 초·재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의회는 올해 1686건의 의원요구 자료를 통해 어느 해보다 활발한 집행부 감시활동을 펼쳤다. 의원 발의 조례도 203건에 달했고 32건의 각종 결의문과 성명서 제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309건의 업무도 처리했다.

반면, 의회 본연의 역할에서는

중이며 8대 의장 선거와 관련해 전현직 의원 20여명도 감찰에 줄줄이 소환되는 등 수모를 겪었다.

F1대회와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의를 할 때마다 치안 시민단체들이 도의회에 몰려드는 등 지역민들의 입장차를 조율하는 역할은 하지 못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욕적인 초선의원들의 활약으로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면서 "남은 임기에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지역민들의 여론도 더욱 살피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北 새해 '정치 이벤트'로 결속 다진다

## 1월 8일 김정은 생일·군 창건일 80돐 등 성대한 행사 준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는 '국상(國喪)'을 당한 북한이 내년에는 각종 정치성 이벤트를 통해 내부 결속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선전국을 의미하는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공연한 내년에 주민들을 대거 동원하는 초대형 행사를 줄줄이 계획하고 있다.

우선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새 영도자로 등극한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군

사위원회 부위원장 체제의 첫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 주민의 결기모임 같은 내부결속 행사를 크게 벌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3대 신문·평양대학·신문공동사설은 그 해의 정책 방향을 안팎에 알리는 공식 신년사로, 북한은 매년 공동사설 이후 평양과 지방, 기관별로 실천 결기모임을 가지곤 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내년 1월8일이

김 위원장 사망 직후 처음 맞는 김 부위원장의 생일이라는 점. 김 부위원장의 실제 출생연도는 1984년이지만 김 주석과 김 위원장의 '꺾어지는 생일'에 맞춰 주민들에게 82년생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정은 체제로 진입해 처음 맞는 '최고지도자'의 생일이어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생일 행사를 성대하게 벌일 가능성이 크다.

김 부위원장 생일 분위기는 김 위원장과 김 주석의 생일 행사에 이어 북한군 창건일까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70회 생일(2월16일), 김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 군 창건 80돐(4월25일) 등 북한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띠는 날들이 모두 '꺾어지는 해'를 맞는다.

북한은 내년 김 주석 생일에 맞춰 평양 10만 가구 살립집 건설 완료, 105층짜리 유경호텔 보수 개장 등을 내세워 강성대국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경축행사를 벌이는 계획을 김 위원장 사망 이전부터 준비해놓았다.

'태양절'로 불리는 김 주석 생일과 함께 북한의 공식 휴일인 김 위원장의 생일은 김 위원장의 사망 두 달을 맞아 예년에 벌인 대규모 축하행사 대신 전국적인 추모대회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회 본연의 역할에서는

원장과 김 주석의 생일 행사에 이어 북한군 창건일까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70회 생일(2월16일), 김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 군 창건 80돐(4월25일) 등 북한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띠는 날들이 모두 '꺾어지는 해'를 맞는다.

북한은 내년 김 주석 생일에 맞춰 평양 10만 가구 살립집 건설 완료, 105층짜리 유경호텔 보수 개장 등을 내세워 강성대국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경축행사를 벌이는 계획을 김 위원장 사망 이전부터 준비해놓았다.

'태양절'로 불리는 김 주석 생일과 함께 북한의 공식 휴일인 김 위원장의 생일은 김 위원장의 사망 두 달을 맞아 예년에 벌인 대규모 축하행사 대신 전국적인 추모대회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회 본연의 역할에서는

## 나주 혁신도시 투자 전문

#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혁신 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우리사무소는 중심상업용지, 이주주택지(점포겸용), 협의주택지 및 혁신 도시 주변토지를 투자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10-2609-5888, 010-3153-4242

전남나주시산포면 매성리354-32(위치: 산포면 전파관리소 부근)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 다가구주택

· 북구 문흥동 3층다가구주택 대지75평 건평130평  
김정기3억3천만 최저가2억3천만

### 농지및토지

·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과수원3,600평  
김정기 2억3천만 최저가 1억6천만  
· 회순군 이양면 오류리 농지(관리지역) 1880평  
김정기 1억1천만 최저가 7천6백만

### 전원주택

· 담양군 남면 구산리 단독주택 대지152평 건평43평  
김정기 8천7백만 최저가 6천2백만  
· 담양군 봉신면 기곡리 단층주택 대지927평 건평42평  
김정기 1억7천만 최저가 1억2천만

### 근린용지

· 남구 백운동 4차선대로변 대지70평(준주거지역)  
김정기 2억9천만 최저가 2억

### 토지매매

· 화순군 도곡면 도곡온천방향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  
· 담양군 남면 구산리 흥원동 흥원방면부근 대지224평  
관리지역 매매 평당50만(조정가)

광주 남구 월 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

## 동명공인중개사

### 상가매매

- 광주최고 핵심상권 대지165㎡ 건물460㎡ 매매기29억원(보증금3억, 월1700, 품자10억) 유령브랜드 전문취급점포
- 남구 대지624㎡ 건물235㎡ 매매기28억원(보증금12억, 월2000만원) 신축건물 입점점포상업점 고수익률
- 남구 대지1372㎡ 건물956㎡ 매매기219억원(보증금6억, 월1,000만원) 일자리여건 최상 입점점포 성업중
- 광신구 첨단지구 신축건물 대지963㎡ 건물2000㎡ 매매가 16억5천만원(보증금1억5천만원, 월950, 품자5억) 입점점포 성업중
- 광신구 월계동 대지227㎡ 건물1000㎡ 매매가 16억5천만원(보증금1억5천만원, 월350만원) 입점점포상업점
- 북구 우산동 대지268㎡ 건물158㎡ 매매기16천만원(보증금6억, 월150만원, 품자250만원) 우편보관부근 유통인구밀도 높은 1층점포

### [신축모델 매매 및 임대 - 투자수익 확보증]

- 신축무인텔 매매 객실26실 매매기30억( 월15억) 최신시설
- 임대도 가능할 보증금 5억, 월 1,000만원
- 신축모델 매매 객실32실 매매기 28억원( 월12억)
- 매입후 임대활 경유 보증금6억, 월2100만원 가능함.

### [고 시 원]

- 용봉동 대지310㎡ 건물618㎡(65실) 매매기7억9천만원( 월3억, 월200만원) 안정적 고수익 투자적합

### [자연녹지지역 및 균형상업지역 토지매매]

- 광신구 수완지구 자연녹지지역 8천평(일방울로)부근
- 대지 15,000㎡ 매매가 15억9천만원(물류센터 등 적합)
- 디 5,988㎡ 매매가 1억2천만원(물류센터 등 적합)
- 북구 연제동 균형상업지역 일어1638㎡ 매매가 1억2천만원(첨단과학산업단지단지내 단지지구 입지로도 투자적합)

### [담양 전원주택 매매]

- 수복면 대방리 2,510㎡ 주택2층(기와, 슬라브) 198㎡ 매매기13억6천만원 주변경관최상 님향 찬밀발조성
- 수복면 대방리 전원주택부지 대지572㎡ 매매가8,200만원

## &lt;h